

미얀마 국가권력과 승가

김성원*

I. 서론

현재 미얀마의 국가권력은 승가(僧伽)에서 나오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를 이끄는 군부권력의 속성 또한 권위주의적인데 이런 성격을 상명하달체계의 군대적 성격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과거부터 이어 온 미얀마 고유의 정치전통, 즉 국가와 승가간의 관계에서 야기된 권위성을 파악해야만 적절한 이해가 되리라 여긴다.

미얀마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통일국가인 버간이 형성된 11세기 이래 통치자인 왕과 승려집단인 승가는 국가를 이끄는 쌍두마차였다. 승가는 왕이 지배하는 국가의 국민들을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 하나로 묶어 주는 대신 왕은 불교의 가장 큰 고객으로서 불교를 진흥하고 승가를 보호했다. 여기에 승가는 불교의 업(業)사상과 전륜성왕(轉輪聖王)적 지배의 당연성을 국민들에게 역설함으로써 왕에게 화답했다. 즉 왕은 전생의 공덕(功德)에 의해 현세의 왕으로 결정되어진 것이므로 국민들은 그 지배권을 무조건 인

* 부산외국어대학교 미얀마어과 부교수. swkim@pufs.ac.kr

정해야 한다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왕은 절대적 권력을 지닌 이상적 지배자인 전륜성왕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이러한 승가의 가르침이 국민들에게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승가가 국민들에게 삶의 가치와 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배자의 치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자 여론을 조성하는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데 따른다.

이렇게 왕과 승가를 떠받치는 국민들은 외형적으로는 왕에 복종하고 정신적으로는 승가에 의지하다 보니 자신들의 인권이나 자유 신장을 외치기가 쉽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절대시하는 불교를 보호하는 지배자를 자신들의 보호자로 여기는 경향이 배태되었다. 이후 이러한 경향이 고착화되면서 권위적인 지배권을 허용하는 정치문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지배자와 승가의 동반자적 관계는 19세기 말 영국이 미얀마의 지배를 대신하면서 휴지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승가에 의지하고 있었고 해방 후 우 누의 문민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관계는 다시 복원되었으며, 현재의 군부정권에서도 이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정권 유지의 정당성을 확보 받으려 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미얀마의 정치권력의 성격이 권위주의적으로 계속 흐를 수 있었던 데는 국민들의 종교를 이끄는 승가가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얀마정치권력의 속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정치성격이 고착화되는 데 승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정의내리고자 한다.

II. 미얀마 정치권력의 속성

1. 불교정치사상

불교가 정치·사회적으로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미얀마는 불교원리 속에서 정치적 정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인간은 현세에서 어찌할 수 없는 업(業)적 존재로서 비록 정치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단지 견디면서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지배자가 홍수, 화재, 도둑, 적과 함께 5대 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지배자가 독재적이고 국민을 유린하는 행위를 할 때라도 반역은 정당화되지 못하고 있다(Spiro 1972: 440). 일반대중은 불교의 업(業) 원리를 깊이 인식하고 있음으로 해서 자신의 현생에서의 계급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은 부질없고 허망한 것이며 따라서 정치에 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치적 저항의식도 관념적으로 허물어버리는 습성이 내재하게 되었다. 여기에 파이(Pye 1962: 182-184)는 미얀마의 아동들은 윗사람에 대해 복종적이 되도록 교육을 받으며 이것은 윗사람을 만족시키게 되는 동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일반대중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권위주의적 의식이 고착화되는 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고샬(Ghoshal 1959: 62) 박사도 ‘초기의 불교 교의학자들이 정립한 인간의 기원을 포함한 사회적, 정치적 제이론 속에 놀라운 공헌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초기 경전 중의 하나인 「약간냐 스타(最初智經)」를 그 예로 들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태초에 처음으로 세계가 자신을 해체하기 시작할 때, 그 속에 살고 있는 존재자들이 오랜 기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광음천(光音天)으로 이주를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가 다시 전개를 시작할 때 그들은 그곳을 떠나 지상으로 내려와 오랫동안 인간존

재로서 삶을 영위했다. …… 인간 존재들이 지상의 물체를 음식으로 취하자 욕망이 일었고, 신체는 굳어지고 외모는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 섭취하는 음식물이 다양해지자 외양상의 차이도 더욱 심화되었다. 신체적 외모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독단과 자만감이 생겨났고, 마침내 남자와 여자로 독특한 모습을 갖춘 이성이 등장하였다. 이후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로서 살기 시작했으며(피야세나 닷사나야 케 1987: 135), 초원에서 모아 온 쌀을 계속 음식으로 취했다. 그러다 가족이 확대되고 숫자가 늘어나자 먹을 것을 확보하고 비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었고, 쌀밭을 분할한다면 각자에게 편리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여 자기 묶인 작은 구역의 주변에 경계를 정했다. 따라서 이제까지 공동으로 소유해 왔던 토지가 개인적 소유로 되었다(Tambiah 1976: 10). 이리하여 사회에서의 사유재산이라는 관념이 발생했던 것이다. 어느 날 한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 구역에서의 쌀을 향유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속하는 토지 구역에서 쌀을 훔쳤다. 사람들은 그를 혼계하였고, 그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도둑질, 거짓말, 비난, 처벌의 시초였다. 이 후 어느 날 사람들은 회합을 갖고 그들 사이에 나쁜 기질이 증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들 사이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도덕의 보호자로서 활동할 사람을 선출하기로 결정하고, 정의를 베푸는 책임을 수행할 직책을 위해 가장 유능하고 대중적이며 멋진 사람을 자기들 속에서 선출하였다. 사람들은 선출된 그 사람에게 앞에서와 같이 처벌을 받을 만한 사람을 비난하고 벌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가 그 직책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동의하자, 그에겐 그 직분에 대한 보수로서 사람들이 생산한 것 중에서의 한 몫이 약속되었다. 그가 사회 전체에 의해 선출되었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마하 땀마다(선출된 위대한 자)’라고 불렀다. 그는 분쟁의 해결권을 가지는 동시에 정의를 베풀고, 법의 유지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으므로 ‘라자(즐거움

-
- 1) 범어梵語로 Abhasvara-deva라 하며, 색계色界 제2선天禪天 가운데의 제3천을 일컫는다. 무량광천無量光天의 위이며 소정천少淨天의 아래에 있다고 한다. 여기에 사는 하늘의 중생衆生은 음성이 없고, 말할 때 입에서 정광淨光을 내어 말의 작용을 한다고 하며, 인류의 시조는 여기서 내려왔다고 한다.

을 주는 자'라는 명칭이 주어졌다. 이와 같이 통치라는 관념이 이 세계에서 발생하였다(피야세나 닷사나야케 1987: 135-139).

이 글에서 보듯 인간 사회를 포함해 사회계층구조도 신이 아닌 바로 인간 자신이 창조하고 있으며, 인간의 탐욕이 사유재산과 타락을 초래했고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혹은 왕과 같은 지배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도가 고착되면서 건전한 행위로 취득한 사유재산은 지켜져야 한다는 견해가 사회전체에 팽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마하 땀마다가 정치적 권위를 확보함으로써만이 국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거짓, 강도, 제도의 파괴 등 사회악을 일삼는 자들을 응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권력은 세습경향을 보였고,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는 다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대신 불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지배자만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배자는 천륜(天輪)을 가진 자로서 법(法)에 입각하여 통치행위를 하는 자라고 한다. 이런 천륜을 가진 자만이 절대적 힘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비로소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도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배자가 국가유지와 그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세계를 정의롭게 다스리는 우주의 제왕이 있었다. 궁전중앙의 넓은 방에는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천륜이 있었다. 왕이 국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나 왕위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오면 이 바퀴는 평상시의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럴 때는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은둔자의 옷을 걸치고 출가생활을 했다. …… 이러한 천륜은 부모로부터 대물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면 천

륜은 다시 나타나며 그 왕은 전륜성왕(轉輪聖王)으로 통칭되었다. 전륜성왕은 항상 법에 따라야 하며 법의 파괴자로부터 왕국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피야세나 닷사나야케 1987: 158-160).

빨리어(Pali) 문헌에 의하면 전륜성왕은 부처와 여러 가지 면에서 흡사하며, 죽은 후의 부처는 전륜성왕의 시신이 화장되는 방법으로 화장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피야세나 닷사나야케 1987: 181). 전륜성왕은 부처가 가진 신뢰, 덕, 겸손, 잘못하지 않으려는 경계, 박식, 박애, 지혜의 일곱 가지 보배와 같이 권세의 바퀴, 코끼리, 말, 보석, 아내, 집사(執事), 수상(首相)이라는 일곱 가지 보배의 물질적 부속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선(善)(attha), 법(法)(dhamma), 자애(慈愛)(metta), 시간(時間)(kala), 대중(大衆)(parisa)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동 시대에 같이 나타나지는 않거나(피야세나 닷사나야케 1987: 182), 같이 공존한다고 해도 부처가 정신계(精神界)를 맡고, 전륜성왕은 속계(俗界)를 맡아 우주의 한쪽씩을 구성하고 있다(Ghoshal 1959: 79).

부처의 견해에 의하면 전륜성왕은 담마라 불리는 보다 우월한 또 다른 왕의 지배를 받는다. 담마의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대체로 법(法), 정의(正義), 우주적 진리(眞理)란 의미로 사용한다. 이에 대한 라다크리쉬난(Radhakrishnan 1962: 170)의 견해는 좀 더 세부적이다. ‘담마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나약한 자가 왕에 의지하듯이 담마에 의지하여 (불필요하게) 강한 자를 타파하고자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에 대해서 그가 담마를 이야기한다고 하고, 담마를 이야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실로 이 둘은 동일하다.’ 스펄만(Spellman 1967: 101)은 담마를 중국철학에서의 ‘도(道)’라는 개념에 비유하여 ‘인간은 땅과 하늘의 지배를 받지만 도는 도 그 자체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그 한계가 없으며, 모든 것의 근원이 담겨 있다. 도는 모난 것을 둥글

게 하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일으키며, 그 근원은 알 수 없으나 신보다는 오래된 것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담마의 현실적 실현은 전륜성왕의 책무이며, 그것은 국민을 위함으로부터 보호하며, 악행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난한 자에겐 재화를 나누어주고, 천륜天輪이 가는 데로 담마를 퍼뜨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및 살생 금지라는 불살생不殺生,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절도의 금지라는 불투도不偷盜, 간통의 금지 및 육체적 욕망에 대한 자제라는 불사음不邪淫, 개인행동의 순결 및 진실이라는 불망어不妄語, 자신의 의무를 망각케 하기 쉬운 독한 음주 및 악물 남용의 금지라는 불음주不飲酒라는 다섯 가지 조항을 엄격히 지키도록 했다.

즉 전륜성왕이 통치하는 이상국가는 담마라는 정의에 입각하여 국민들이 안정된 질서 속에서 도덕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물질적 빈곤감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인간의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이 고루 만족되는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륜성왕의 통치는 특정한 성격의 틀을 억지로 강요하기보다는 담마를 지키고 따르도록 하는 기본적인 정책만 설정해 줌으로써 각 지역의 전통적인 관습과 문화가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결과도 가져왔다. 다시 말해 전륜성왕이 통치하는 사회는 담마를 그 틀로 삼으며, 사회구성원들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관습 및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처음 담마를 접하는 사람들도 큰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외형적으로는 담마를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존의 생활방식을 인정하는 담마의 유연성으로 인해 실제로는 사회전체가 유기적인 조직체組織體로 지속되기는 어려운 일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 정치사상이란 대중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국가 혹은 지배자 중심의 이론임을 알 수 있다. 탐욕, 거짓, 도둑 등의 사회악(社會惡)적 요소를 만든 것은 대중이었고, 이런 현상을 제거하고 선(善)이 충만한 사회 즉 정의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하 띵마다, 전륜성왕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배자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서 정의라는 개념은 언제든지 담마 또는 왕의 명령으로 대변될 수 있으며, 이는 왕이 행하는 전쟁과 정복을 옹호하는 구실을 한다. 이것은 왕의 의무가 인습적인 도덕 기준과는 무관하며, 폭력이 생활의 법이라는 위험한 주장으로 전용(轉用)될 수 있으며, 세입과 군대라는 두 기둥으로 상징되는 국가가 법 또는 정의의 원천인 동시에 국민에게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도로 그 충성에 부응하는 것으로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Ghoshal 1959: 534).

2. 불법(佛法)왕적 전통 수립

아노야타 왕은 하부 미얀마 따톤왕국에서 건너 온 민족 승려 쁘아라한을 만나 11세기 중엽 미얀마 역사상 불교를 가지고 최초로 정치적 통합을 이룬다. 쁘아라한은 테라바다라 불리는 상좌부불교 교리에 정통한 사람으로(Ray 1946: 98) 아노야타의 요구에 부응하여 왕국 전역에 불교의 가르침을 이식시켰다. 이것이 바로 정치와 불교, 혹은 지배자와 승가 간의 최초의 합작품이다.

이후 버간왕국의 지배자들은 불교로 왕국을 보다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버간은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로 급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불완전했지만 불경(佛經)어였던 빠리어가 산스크리트어를 대신하였으며 함께 들어 온 민족의 철자도 수용함으로써 비록 여전히 미

속하고 완전히 통일된 형식은 아니었지만 버마족 사람들도 자신의 언어를 글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계속해서 아노야타는 상좌부불교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스리랑카의 불교가 인도의 따밀족 힌두교도 침략자로 인해 불교가 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 경전과 승려들을 보내 불교의 부흥을 도와주기도 했으며, 버간을 상좌부불교의 중심지로 설정하여 이웃 국가들의 불교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했다. 특히 무슬림의 통치하에 놓여 쇠퇴해 가던 인도 불교도들의 피난처 구실을 하는 등 불교를 통한 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아노야타의 치세 말기에 이르러 전통적인 미얀마 불교의 한 중요한 특징이 분명해지게 되었다. 즉 불교에 대한 각별한 믿음이 왕의 기능으로 인식된 것이다. 왕의 불교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지지의 결과로 버간 이후의 이어지는 왕국들도 상좌부불교 교의의 발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이후 역대 미얀마 왕들은 불교를 고양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불법왕적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거대한 불탑을 계속 건립하고 장식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16세기 따웅우왕국의 버이나웅 왕은 왕실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왕관을 쪼개어 나온 보석들로 현재 양곤에 있으며 미얀마인의 심장이라 일컫는 슈웨디공 파고다를 비롯한 많은 파고다들에 안치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은 예외 없이 부처의 유물을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세기 끝바웅왕조의 보도폐야 왕은 파고다와 분묘의 건립을 위해 세입 중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기도 하였다. 미얀마의 마지막 왕 띠보는 1884년 만달레이 소재 마하무니 파고다를 방문했을 때, 부처상의 제막식에 참석하여 금관과 9종류의 진귀한 보석이 박혀 있는 견장을 헌납하기도 했다. 이 때 그는 금관을 부처상의 머리위에 씌웠는데 그 이유는 살아 있는 위대한 부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Taw Sein Ko 1989: 18).

왕들은 왕국 내의 미개한 토속 신앙을 믿는 지역에 불교를 전파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버인나웅 왕은 산 지역에서 횡행하던 부장 습관 - 마을의 촌장이 죽으면 그가 거느리던 노예, 코끼리, 말을 죽여 함께 묻었다. - 을 일소시키고 이곳에다 많은 승려들을 이주시키고 사원들을 건립하여 담마를 깨치도록 했다. 띠보 왕도 비 불교화된 지역에 승려들을 보내어 불교를 전파하는 일 외에도 문명을 깨치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불교의 고양을 위해 경전보존에 심혈을 기울인 아노야타에 이어, 1871년 민돈 왕은 수세기를 거치면서 잘못 복제되고 누락된 것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공인된 빨리어 경전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지휘 하에 각지의 고승들을 불러 들여 3년여에 걸쳐 공인 경전을 완성했다. 완성된 경전을 만달레이 언덕 하부에 위치한 꾸도도 파고다 내에 729개의 대리석 벽면에 나누어 새겨 넣었다. 왕명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승가의 관찰 하에 불교도들의 사순절을 지내도록 하였는데, 때때로 자격 있는 승려들이 이 경전을 궁전에서 암송하도록 왕의 명령을 받곤 했다. 또한 왕명으로 매년 이 경전의 암송 시험이 치러졌다(Taw Sein Ko 1989: 11-17). 그리고 이 시험은 나중에 궁중 대신회의체인 흘루또의 위원이 되기 위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3가지 구비 요건 중에 하나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대신들은 불교의 번창, 왕의 안녕, 국가의 번영에 책임을 진다는 약속을 하며(Ma kyan 1961: 45), 왕과 대신들은 종교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12명의 세야도高僧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각종 행사에 있어 경전의 암송 시행 여부, 유물의 파고다 안치, 왕실 점성술사로부터 받은 길일의 조정 여부 등이었다(Taw Sein Ko 1989: 217-224).

이제 불교가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위치를 고수함과 동시에 왕의 세속적인 권력과 권위는 불교의 업棼에 의해 인정받았다. 왕은 전생에 자신이 쌓은 공덕에 의해 현세에서 왕으로 결정되어진 것이

므로(Thaung 1959: 173) 자신의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당성을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은 왕의 지위를 시거나 질투, 또는 부러운 마음으로 넘보아서는 안 되며 단지 존경과 존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상적인 불법왕은 앞서 언급한 전륜성왕적 이미지 내지는 최소한 ‘내세의 부처’로 결정된 보살菩薩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했다(Sakai 1961: 54-56). 실제로 미얀마의 많은 왕들은 이러한 믿음에 입각해 있었다. “나는 내가 쌓은 공덕으로 내 세에는 전능한 부처가 될 것이다.”(Eliot 1957: 63) 왕들은 공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저지르는 무자비한 행위에 대한 업을 사하는 것으로 자위했다. 12세기 알라우시뚜 왕이 궁전 벽에 빨리어로 남긴 기원문에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내가 쌓은 지고한 공덕으로 ……윤회의 강을 건널 것이다.”(Harvey 1926: 47)로 되어 있다. 이는 자신이 쌓은 공덕으로 인해 윤회의 업을 떨치고 마침내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해방 이후 수상이 된 우누도 “정부의 역할은 현세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내세에서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가 국교가 되어야 한다.”(The Guardian 1961/08/18)고 역설하고 있다.

Ⅲ. 국가와 승가

1. 지배자의 승가통제

지배자가 불교를 숭배하고 후원할수록 승가도 그만큼 대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며 집단의 규모도 거대해져 급기야는 지배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지배자는 이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승가계급제이다. 이는 그물망과 같아 지

배자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동시에 국민들을 국가란 틀 속에 가둬두기도 용이했던 제도이다.

앞서 언급한 아노야타 왕이 쉰아라한을 중심으로 왕국을 불교화하면서 쉰아라한이 승가의 정점인 국사國師 역할을 한 데서 유래된 것이기도 하다. 왕이 지명하는 국사는 수도에 거주하는 8명 내지 12명의 큰스님격인 세야도로 구성되는 위원회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왕은 왕국을 교구 단위로 분구하였다. 분구는 국사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잉족의 휘하에 두었으며, 분구의 하부에 해당하는 소분구는 가잉족보다 낮은 위치인 가잉옥의 휘하에 두도록 하였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조직체계는 국사에서부터 마을 촌장에 이르기까지 상명하달上命下達식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승려들은 수행자로서의 할 일을 중시할 뿐 상급자에게 복종을 맹세하는 것은 아니다(Smith 1965: 16). 따라서 미얀마 불교의 승려들은 국가 조직에 있어서 유기체적 요소가 아니라 개인적이며 독립된 개체로서의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직자 조직의 중요한 기능은 승가의 계율을 유지시키는 데 있었다. 사원내의 분쟁이나 계율을 위배했을 때는 당 사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잉족이 해결하며, 가잉족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사격인 따드나바잉 혹은 땅가라자와 세야도위원회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사원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또는 분파주의적 행위,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시에는 일반 법정에 옮겨져 재판을 받았으며 승려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고 승가에서 추방되어지기도 했다(Cady 1958: 53-56).

그리고 비록 국사를 비롯해 계급적 상부에 있는 승려가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왕에게만 직접 책임을 지는 왕실 감사원 격인 윗미에윙과 마하당윙이 있었다. 윗미에윙은 사원과 파고다에 소속된 토지와 노예에

관한 행정을 감독하였으며, 마하당왕은 계를 받은 승려, 이들의 나이, 계를 받은 날짜를 매년 공식적으로 목록화하는 일을 맡고 있어 승려들의 재산이나 인적변동사항을 근거로 승가의 상부기관이 내린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국사 또한 자체적으로 모든 승려들의 경력, 학문적 업적, 행위에 관한 정보들을 연례적으로 보고토록 하여(Harvey 1926: 326) 상부기관이 내린 결정에 불응할 여지를 최소화해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왕실 최고 법정이자 왕의 자문 기관인 홀루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나아가 승려가 왕위전복 음모에 관련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왕은 승려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도 했다. 버마, 몬, 산, 라카인족들 간의 내전이 일어났을 때 왕은 점령지의 승려들이 모반을 단행할 폭도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보고 승려들의 학살을 자행했다. 18세기 중엽 끈바웅왕조를 열었던 알라웅페야 왕이 점령지인 버고에서 몬족 모반자들을 도왔다는 구실로 3600명에 달하는 승려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Harvey 1926: 235) 일이 그 대표적 경우이다. 그리고 승가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판단했을 때 왕들은 승려들을 스리랑카로 보내어 새로운 형식의 계를 받아오게 하여(Smith 1965: 28) 승가계급제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도 했다. 12세기 버간왕국의 나라빠띠시뚜는 스리랑카에서 계를 받은 승려를 국사로 임명한 일(김성원 2001: 86), 15세기 버고의 담마제디 왕이 44명의 승려를 선발하여 스리랑카에서 새로운 계를 받아오게 하여 승가를 정화하고 통일시키고자 했던 일(김성원 2001: 147)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미얀마 불교에 있어서 승가의 규율과 정화는 왕의 관심과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민돈 왕 당시 해이해져 있던 승가의 규율을 바로잡기 위해 승려들로 하여금 부처상 앞에서 계

을을 따르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왕이 명령하고 실제로 고승들이 이를 수행했던 점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승가계급제를 통해 지배자는 승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승가를 최대한 보호하는 당근도 제공한다. 승려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녹祿을 나누어주는 일, 승려들의 안식처로서 사원을 제공하는 일들 외에도 이교도의 배척과 분리주의를 엄단함으로써 승가의 지지를 항상 이끌어낼 수 있었다.

2. 승가의 역할

초기의 불교 승려들은 개인적으로 탁발을 하며 다니다가 우기(雨期)가 되면 함께 무리 지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일정한 거주지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되었고, 단체의 효율적인 생활을 위해 승가를 조직하여 승려의 법과 규율을 제정하였으며, 면발을 하고 황색 가사를 입는 외에 한 달에 두 번씩 회합을 갖기로 하는 등 규칙을 정했다. 이 규칙은 계율이 되었고 이 계율을 준수하는 승려집단이 바로 승가이다.

계율에 의하면 승려들은 세속적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종교에만 헌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역사에서 승려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현대에는 정부가 담당하는 범주에 들어 있는 부분들을 과거 미얀마에서는 승려들이 담당했다. 예를 들면 승가가 교육을 담당했던 점, 법률편찬에 책임을 지는 일 등이었다. 정치에 있어서도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지 못했을 때와 정부의 힘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지방과 변경지역에 있어서는 승가의 사회조정역이 강하게 미치고 있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촌장을 위시하여 승려들은 마을 사람들의 예의범절과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을 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법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타이르고 훈

계하는 역할을 했다. 주민들이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한다든가 세금지불의 지연을 가져올 때는 가잉축 또는 가잉옥, 어떤 경우에는 영향력 있는 세야도로 하여금 정부를 대신하여 국민들을 설득하도록 요구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승려가 국민들을 대신하여 왕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경우 대부분이 승려의 중재안에 왕과 국민들은 승복하였다. 1875년 가뭄으로 인해 흉작이었을 때 떠야인의 가잉옥과 세야도들은 주둔 군대의 병참을 위해 내야 했던 세금을 면제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왕에게 냈다. 왕은 특사를 파견하여 이들이 낸 의견을 수용할 것을 그 지방 관리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이렇게 승려들의 의견이 수용됨으로써 왕실과 국민들 사이에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견되었던 일이 별 탈 없이 해결되었던 것이다(Taw Sein Ko 1989: 160).

불교 승려들은 과거를 배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교사 역할을 하였다. 마을의 사원들은 몇 년 단위로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되었다. 불교의 교리를 경전을 통해 배우면서 불교적 가치관 외에 글자도 익힐 수 있었다. 이것은 교육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초 한 영국인 관찰자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미얀마 사람들의 문자 해독률이 영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Gouger 1860: 21-22).

이러한 승가의 교육적 역할은 사회 위상과 대중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행정 당국의 권한이 수도권을 벗어나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에 반해 승가는 국가의 구석구석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승가의 지도급 위치에 있는 승려들은 때때로 왕명에 의해 외교 사절로 보내지곤 했다. 12세기 스리랑카와 관계가 좋지 못했을 때 한 승려가 평화 사절로 보내져 우호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도 했으며, 13세기에는 한 고승이 중국에 보내져 몽고에 예를 다하겠다는 약조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

리고 16세기에는 스리랑카 공주를 왕비로 삼는 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임무를 미얀마 왕으로부터 부여받고 스리랑카로 파견되었던 일단의 승려들이 있었다(Harvey 1926: 173). 버마 족과 몬, 그리고 라카인족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도 승려들이 평화를 위해 중재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가장 극적인 예는 1406년 버마족을 대표한 한 승려가 코끼리를 탄 채 흰옷을 입고 모두가 선물을 지참한 300명의 노인들을 이끌고 몬족 왕 라자드릿 앞으로 간 일이었다. 여기에서 그 승려는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전쟁을 종결짓자고 제안했다(Harvey 1926: 88). 끈바웅왕조의 바지도 왕은 1826년 영국에 평화를 호소하기 위해 한 승려를 영국군 측에 보내기도 했다(Snodgrass 1827: 311).

14세기의 문헌에 의하면 국사의 권한은 왕권의 상징인 흰 우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왕에 대한 영향력도 절대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국사는 왕의 스승이시며, 백만 승려들 위에 군림하는 동시에 금으로 된 살과 면으로 된 덮개로 만들어진 흰 우산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분이다.”(Than Tun 1959: 114) 19세기 한 영국군 장교가 묘사한 것에도 국사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글귀가 있다. “국사는 종교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왕에 필적할 만큼의 존경과 경배를 받았다. 그는 금으로 된 침단과 금으로 내부가 장식된 거대한 사원에 거주했다.”(Fytche 1878: 195).

IV. 군부정권과 승가

1. 군부정치의 정당성 확보

1962년 3월 2일 의회에 들이닥침으로써 군부통치의 신호탄을 발사했던 네윈의 혁명위원회(Revolution Council)에서 현재의 국가평화발전위원

회(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까지 정치는 승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혁명위원회는 처음에는 이전 우누 정권이 불교를 통한 정권의 합법성을 창출했던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했다. 우누가 국가 이데올로기로 내세웠던 불교는 비불교도들의 불만을 야기시켜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려들의 정치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가의 정치 장악력이 현저히 하락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네윈은 우누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던 불교의 국교화법을 중지시킨 데 이어 불교위원회(Buddha Sasana Council)를 해체시켜 버렸다. 버고의 마하제디 파고다의 재 건립에 잡혀 있는 정부예산을 정지시킨 데(Smith 1965: 170) 이어 불교도들의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것은 각 관공서의 휴무가 일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었다. 게다가 불교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가축살육 금지법안을 폐지시켜 버렸다. 그리고 1년 동안은 외국 불교 순례자들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1962년 불교도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단체로 하여금 지방 치안행정위원회(SAC, Security and Administration Committee)에 의무적으로 등록케 하여 이들의 정치적 활동을 규제하였다(Taylor 1987: 357). 그러나 한 승려가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살함으로써 그 해 5월 등록 의무화 명령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1965년 3월에 정부의 사주를 받는 ‘승려 연합회’의 이름으로 전국의 모든 승려들에게 승려증을 배부함으로써 승려들은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동시에 불교의 개혁을 단행했다. 이러한 승려 등록제를 포함한 승려의 자유를 묶는 정부의 조치에 많은 승려들이 정부의 명령에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갔다. 이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되자 한 달 후 네윈은 이들 중 92명의 승려를 체포하는 동시에 많은 사원을 폐쇄시켜버렸고, 계속 항의를 표시하는 승려들은 공산주의자 혹은 불법 정당 정치인으로 간주하

여 탄압하였다(Taylor 1987: 357). 1년 후 내원은 승려들의 소유권을 철폐하는 동시에 이들의 투표권을 박탈하였다. 그러나 불교도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종교적인 자유는 계속 허용하였지만 종교성(The Ministry of Home and Religious Affairs)을 신설하여 이들의 조직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1950년에 발족된 ‘불법위원회(Buddha Sasana Council)’의 폐지를 포함한 ‘국가종교진흥법(State Religion Promotion Act)’의 취소 등의 불교에 대한 제 정책으로 승가의 지지를 더욱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승가 구성원 등록 명령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반정부적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후 국가는 불교적 계율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드디어 ‘국가는 불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선언을 한 것에 이어 1974년 제정된 헌법에 이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국가가 해 왔던 불교의 보호 의무를 정식으로 파기했다. 아울러 종교적으로 지정된 모든 공휴일을 폐지하고, 짐승의 도축금지를 해제하였으며, 비불교도 소수종족들의 개종을 금지시킴으로써 승가와와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게 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불교도인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반외세 민족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쿠데타정권의 정당성을 창출코자 했던 군부의 입장에서 또다시 불교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과거의 왕들이 했던 것처럼 불교를 인정하고 후원하는 것이 정권의 안정 및 유지가 더욱 용이하리란 판단이었다.

다시 말해 해방 후 민주주의 실험시기에 보였던 극도의 혼란상황과 불안한 내정은, 한계를 보였던 불교도 수상 우누의 통치력과 불교도 국민들의 자만에서 비롯되었다. 대부분 불교도인 버마족에 반감을 가진 각종의 소수종족과 이슬람, 힌두, 기독교도의 불만표출과 이를 다수의 힘으로 틀어막고자 한 데서 비롯된 갈등이 끝없는 사회불안을 야기 시켰고, 급기야는 불교도들 내부에서조차 분열이 발생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내정안정을 명분으로 집권한 내원의 입장에서는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불교를

덮어버리든지 아니면 최대한 거리를 두어 외면함으로써 가장 반감이 컸던 비(非)불교도들을 진정시키는 일이 급선무였다. 이의 일환으로 정치에서 불교의 역할을 최소화시켰고,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사회주의도 우누의 불교사회주의에서 버마식사회주의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아울러 불교도에 대한 공직에서의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일선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에서도 불교교육을 철폐시키는 등 비불교도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 했으며, 모든 국민들에게 어떤 종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종교차별을 철폐했다. 예상대로 비불교도들의 반감도 한층 누그러들었고, 불교도 국민들도 대체로 수긍함으로써 내정은 안정화되어 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원은 장기집권의 수순에 들어갔고 자신의 집권연장의 명분도 떨어져갔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확대조직한 여당격인 버마사회주의계획당과 군조직은 자신의 음모에 반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폭동이나 내란에 대처할 자신감이 생겨 있었다. 즉 내원은 1971년 7만 명의 당원에서 1981년 40만 명의 당원과 200만 명의 후보당원을 확보하여 여당을 거대정당으로 키우는 한편 1974년 신헌법 제정으로 형식적인 민정이양이 이루어지면서 내원은 국가평의회 의장, 버마사회주의계획당 의장, 대통령을 겸직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아울러 대통령 밑에 국가정보국(NIB)과 국군정보국(MIS)을 두어 모든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권력의 안전판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되자 지엽적 소요가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집권을 계속할 수 있는 명분제공이 되었다. 이에 집권초기의 태도에서 돌변하여 불교를 중시한다. 이는 비불교도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소요를 부추기는 한편 불교도들로 하여금 내정불안에 대한 우려감을 유발시키는 동시에 이들 스스로가 국가의 중심이란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정권을 안정·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1980년에 들어와서 개최된 두 번째 승가 모임에서 정부의 승가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바뀌어 복고적 관계를 요구한다. 승가의 정화, 보호, 전파를 위한 전 승가 모임을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다. 이 모임은 내원에 의해 4천 명의 수감자를 특별 사면한 것과 더불어 개최된 것으로 초청된 승가 대표자 1235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 국가가 지정해준 방향으로 불교의 통일과 정화, 발전,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고 승가위원회(SSC, Supreme Sangha Council)’를 결성했다. 하지만 이 기관은 각 지역별, 종파간의 분리화를 막고, 승려 등록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가 승가를 통일적이고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 그 진정한 의도였다.

SSC를 정점으로 승가 내의 지휘체계와 행정단계가 정리되었지만, SSC의 구성원은 종교성에 의해 지명됨으로 해서 그 권한은 국가에 의해 제한 받았다. 1988-90년 사이에 발생했던 민주화운동 시기에 계율에 저촉되는 행위 즉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던 승려들의 처리를 SSC에 위임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판결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SSC의 하부에 각각의 주, 시, 구, 부락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하부조직은 국가에 승가가 보다 효율적으로 귀속되어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1985년 정부는 세 번째 승가 모임을 주도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승가의 통제를 확고히 했다. 승가의 조직화는 승려들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Taylor 1987: 358), 이것은 미얀마 역사상 불교와 관련해 국가의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한 것이었다.

계속해서 정부는 고등학교에서 불교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설정하고, 양곤과 만달레이에 각각 하나씩 있는 불교대학을 종교성 주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승가 구성원 중 80%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감안해 수도권 교육수준을 높이고, 파고다의 개보수 및 증축을 함으로써 불교 진흥을 사실상 진작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에 모셔져 있

는 부처의 송곳니를 들여와 전시함으로써 국민들을 열광케 하는 일, 스리랑카의 유명한 고승 라후라(Aggamahapadita Walpola Rahula)가 계를 수여했다. 물론 이 의식은 성대히 치러졌고 군사정부가 불교 진흥자로 자처할 수 있는 선전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국내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고승들을 상대로 이들이 거주하는 사원에 거금을 시주의 명목으로 기부하거나 자동차, 텔레비전 등을 선물함으로써 정부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들로 하여금 친정부적 연설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교도 국민들로부터 간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V. 결론

미얀마의 정치사에서 불교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았다. 불교가 제공하는 정치사상은 미얀마정치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과거의 왕과 현재의 군부통치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의 연속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다.

지배자로 대표되는 국가와 이를 보조하는 승가는 동양의 전통적 부부夫婦관계와도 같다. 국민은 이들의 자식처럼 국가에는 복종과 승가에는 공덕功德이란 효孝를 다하고 있고, 국가는 승가라는 아내와 국민이라는 자식을 보호하고 가꾸며, 승가는 국가라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국민들이 국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자비慈悲라는 모성애母性愛로 감싸 안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는 이런 승가를 잘 돌봐주면서 국민이란 자식을 최대한 끌어안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비록 국가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불만을 산다 해도 승가는 국민을 잘 다독거리려 국가를 떠받들도록 한다.

천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줄곧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은 향후 미얀마의 정치와 사회 환경이 달라진다 해도 국가와 승가의 관계는 큰 변화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해 준다.

주제어 : 국가권력, 승가, 군부, 전륜성왕.

참고문헌

- 김성원. 2001. 『미얀마왕조사』.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 피아세나 닷사나야케. 1987. 『불교의 정치철학』. 정승석 옮김. 서울: 대원정사.
- Cady, J. F. 1958. *A History of Modern Burma*. Cornell University, Ithaca.
- Eliot, Charles. 1957. *Hinduism and Buddhism*.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Fytche, Albert. 1878. *Burma Past and Present*. London: C. Kegan Paul and Company.
- Ghoshal, U. N. 1959. *A History of Indian Political Ide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uger, Henry. 1860. *Personal Narrative of Two Years' Imprisonment in Burma*. London: John Murray.
- Harvey, G. E. 1926. *Outline of Burmese History*, Bombay Calcutta Madras: Longmans, Green and Co.
- Ma kyan. 1961. "King Mindon's Councillors." *Journal of the Burma Research Society* 44(1): 45.
- Pye, Lucian W. 1962. *Politics, Personality and Nation-Building: Burma's Search for Ident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adhakrishnan, S. 1962. "The Principle Upanisads." *A History of India*, pt. I London and New York.
- Ray, Niharranjan. 1946. *Theravada Buddhism in Burma*. University of Calcutta.

- Sakai, Robert K. 1961. *Studies in Asia.1961*.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mith, Donald Eugene. 1965. *Religion and Politics in Burma*.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nodgrass, John James. 1827. *Narrative of the Burmese War*. London: John Murray.
- Spellman, W. 1967. *Political Theory of Ancient India*. Oxford: Clarendon Press.
- Spiro, Melford E. 1972. *Buddhism and Society: A Great Tradition and Its Burmese Vicissitudes*. New York: Harper and Row.
- Tambiah, S. J. 1976. *World Conqueror and World Renouncer: A Study of Buddhism and Polity in Thailand Against a Historical Backgroun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w Sein Ko. 1989. *Selections from the Records of the Hlutdaw*. Rangoon: Government Printing.
- Taylor, Robert H. 1987. *The State in Burma*. London: C. Hurst & Company.
- Than Tun. 1959. "History of Burma: A.D.1300~1400.", "Mahakassapa and His Tradition." *Journal of the Burma Research Society* 42(2): 114.
- Thaung. 1959. "Burmese Kingship in Theory and Practice During the Reign of Mindon." *Journal of the Burma Research Society* 42(2): 173.
- The Guardian*, 1961, August 18.

Abstract

State Power and Sangha in Myanmar

Kim Sung Won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 can hardly comment on political Power of Myanmar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of Burmese Buddhism and Sangha.

In 11th century, since dynasty country had been founded in Myanmar, Buddhism has taken the central role in political and social affairs. King and Sangha have been a carriage-and-pair which maintained kingdom. People who backed up king and Sangha had obeyed king externally and relied on Sangha spritually. Kings of Myanmar surrounded their people with Buddhism and were recognized legitimacy by Sangha. Therefore they could keep going kingdom and under this system king's authority could be guaranteed.

For example, Sangha taught that people should obey their kings and admit the right of his dominance based on 'kamma' in Buddhism because king is determined by his charity that accumulated in his previous life. Sangha devoted to unify the people as on country by respecting Buddha and Buddhism as well as their kings. Furthermore Myanmar people prefer to get a powerful leader so-called Chakravartin who can keep the order in society

and the happy feeling of expectation to be ruled by him. And also, why the people in Myanmar can't achieve their democracy and give the right to rule the state to the authoritative military government Junta are from their deep soul which believe the stronger the political power can achieve that more stable society and protecting of Buddhism.

Now the SPDC government has tried to get the legitimacy with attempting to satisfy people's expectation to the religion.

Key words : political power, Sangha, Junta, Chakravartin.